

# Ayo Adewuya 박사 , 고린도후서, 6차 세션, 고린도후서 5장, 그리스도의 대사

© 2024 Ayo Adewuya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고린도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아요 아데

우야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6, 고린도후서 5장,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을 살펴보고 있으며, 다시 시작하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각 장을 조금씩 그리고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하는 일을 할까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동기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사역에 매우 적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저 옳은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옳은 이유로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직면한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부름받은 사역을 추구하는 데 끈기 있었습니다. 그의 열정은 결코 시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계속 나아갔습니다. 핵심어는 동기입니다.

올바른 동기라는 의미에서의 동기. 4장, 오히려 5장에 이르러서 바울은 4장 17~18절의 결론을 바탕으로 사역에 대한 동기를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바울은 의심할 여지 없이 고통과 아픔이 없는 미래의 삶을 온전히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변화가 없는 삶, 죽음이 힘을 잃은 삶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풍성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미래의 신의 심판을 확신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거나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9절에서 10절에서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가올 심판에 직면하여 그는 엄청난 확신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인류와 신의 화해가 신의 주도이며, 사랑으로 동기를 부여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고 그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5장에 이르러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어떤 구절도 5장만큼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해석은 다양하지만, 어떤 것들은 매우 분명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4장의 부분과 직접 관련이 있는데, 바울은 고난과 혼란과 박해 속에서도 신성한 위로를 통해 영광의 소망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필멸과 죽음의 파괴가 있는 가운데서도 신성한 개입을 통해 생명의 작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4장 10절에서 12절에서 본 것입니다 .

그래서 죽음 속에서의 삶, 고통 이후의 영광이라는 이중적 주제는 바울이 5장 1절에서 10절까지 계속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제 임박한 죽음의 가능성에 직면한 신자에게 주어진 신성한 위로의 근원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첫째, 영적 몸을 미래에 소유할 것이라는 확실성입니다.

두 번째, 궁극적인 변형의 보증으로서 영의 현재 소유. 그리고 물론, 세 번째에서 우리는 죽음이 가져오는 지식이 시야의 영역에서 걷기를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임재로 떠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봅니다. 저는 5장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지상 천막, 우리가 사는 지상 천막이 파괴된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건물,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천막에서 우리는 신음하며, 하늘의 거처로 옷 입기를 갈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을 벗었을 때 별거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 천막에 있는 동안 우리는 옷을 벗고 싶어하지 않고 더 입어 필멸적인 것이 생명에 삼켜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짐 아래서 신음합니다.

우리를 이 일을 위해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며, 그분은 우리에게 영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에 거하는 동안은 주님에게서 떨어져 있음을 알지만, 항상 확신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확신이 있으며, 우리는 오히려 몸에서 떠나 주님과 함께 집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집에 있든 없든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각자가 몸으로 행한 일에 대해 선하든 악하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기본적으로 바울이 죽음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의 어조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상의 천막이 파괴된다면, 그것은 고린도인들이 바울이 말하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것은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그리스도인이 결국 자신의 현재 경험의 연약함과 고통을 마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나타냅니다.

이제 들어보세요, 바울은 우리가 안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희망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정한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대담한 발언입니까. 바울이 4장 1절에서 15절에서 이전에 말했듯이,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생에서 어떤 시련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4장에서 읽은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바울은 사도로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자신의 죽음의 가능성, 이제는 확률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과 1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통해 판단해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1장 8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아시아에서 최근에 겪은 파괴적인 죽음의 결과로, 그는 파루시아, 즉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현현 전에 죽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항상 생존에 대한 희망을 품었지만, 그는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시다시피, 그런 희망을 가질 때, 그것은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지상의 천막에서 압니다. 이제 바울이 가족보행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바울은 가족 워커였으며, 그의 임무에는 천막 만들기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현재 몸을 지상 천막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직업, 일에서 그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현재의 몸을 언제든지 해체되거나 파괴될 수 있는 지상의 천막에 비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몸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약함과 쇠퇴의 과정이 끝났음을 나타낼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그러나, 지상의 천막이 해체될 가능성은 그를 전혀 낙담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영원한 천상의 집을 확실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보세요, 2절, 이 천막에서 우리는 신음하며 천상의 거처에 가까이 있기를 갈망합니다. 그 구절에서 지금과 아직을 보세요.

지금 우리는 텐트에서 산다. 아직은, 우리는 살고, 우리는 건물을 가지고 있다. 건물과 대조되는 텐트.

그뿐만 아니라, 하나는 지상적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합니다. 하나는 오히려 천상적입니다. 그러므로 영속성 측면에서 하나는 천막이고 다른 하나는 건물입니다.

환경 면에서 하나는 지상적이고 다른 하나는 천상적입니다. 보세요, 하나는 파괴 가능하고 하나는 영원합니다. 구조, 견고성 면에서는 이 천막에서 우리는 신음하며 천상의 거처에 가까이 있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는 인간이 만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이 만든 것입니다. 차이점을 보세요. 매우, 매우 다릅니다.

그것은 현재의 인간의 몸을 건물로 대체될 접이식 천막에 비유하는데, 이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전에 언급한 부활의 몸을 분명히 암시합니다. 저는 그 위대한 부활 장을 말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면, 바울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려면 그가 앞서 부활에 대해 말한 내용을 참고해 봅시다.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데, 고린도후서 5장이 없다면 사람이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제외하면 믿는 이가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말해주는 유일한 구절이 이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단순히 구주와 함께 떠나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몇 구절을 살펴보면, 우선 38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8절에서 하나님은 그 몸에 각기 자기의 몸을 택하신 대로 주십니다. 40절에서 천상의 몸과 지상의 몸이 있으나 천상의 영광은 하나이고 지상의 영광도 하나입니다. 천상의 것은 하늘의 것을 의미하고 지상의 것은 땅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영광은 하나이고 땅의 영광은 또 다른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을 수 있는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부활합니다. 44절에서, 그것은 육신으로 심지만 영적인 몸으로 부활합니다.

육신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그러면 46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서는 거짓인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이요, 그러면 영적인 것입니다. 48절에서 말씀합니다. 흠에 속한 사람이었듯이 흠을 가진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그러하듯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지상의 것과 지상의 것을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그리고 52절부터 시작하여, 52절부터 시작하여, 그는 말합니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나팔 소리가 울리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을 본성은 썩지 아니할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본성은 불멸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불멸을 입을 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망이 승리에 삼켜졌습니다. 그러므로 점차 늙고 낡아지는 현재 시제의 몸은 우리가 죽을 때 내려져 접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신실한 자들의 부활 때, 우리는 새로운 몸을 받고, 그 시점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료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몸에 대해 말하고, 죽음 앞에서의 확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은 서로 맞닿아 있고, 4절은 실제로 2절을 확장하는 반면 3절은 일종의 괄호입니다. 바울이 부활의 몸에 대한 미래의 고소에 대해 확신한 한 가지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었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구절에서 암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4절에서 우리가 이 천막에 있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짐 아래서 신음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음합니다. 이 구절은 신음의 정확한 본질을 정의하지 않지만, 즉각적인 맥락과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과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바울의 생각은 그가 필멸의 존재의 한계와 장애에 대한 좌절감을 느꼈고, 자신이 하늘의

생태계에 완벽하게 적응된 영적 몸을 소유하도록 운명지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해방을 추구했습니다. 현재의 육신의 불완전함으로부터의 해방, 쇠퇴에 대한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모든 형태의 육체성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결국, 기독교 신학은 바울에게 영적 신체에 대한 교리를 빚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의 그리스도인의 운명에 대한 견해를 공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활이 과거에 있었고, 영적으로 이미 이루어졌으며, 그리스도의 부활 때 모든 신자들에게 공동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시 영지 주의자 라고 부르는 사람들 , 즉 지식을 믿고 그런 모든 것을 믿는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원론적이고, 미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고, 무육신의 불멸을 구상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그들에게 우리가 옷을 벗고 싶어하지 않고, 무거운 거주 없이 옷을 입고, 덧입고 싶어한다고 말합니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신자의 현재 존재는 고통과 아픔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 시대는 신음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사실, 바울은 창조물이 지금도 신음하며 구원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음합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우리는 희망 없는 사람들처럼 신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갈망을 동반한 신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죽음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소망과 신음은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 왜냐하면 죽음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천국을 간절히 갈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천국에 더 쉽게 갈 수 있는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상에서 너무 편안하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편안함을 추구하는 데 바쳐서도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헌법에 있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아무도 그것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당신은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따라잡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이유인데,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행복은 다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 행복은 일어나는 일에 속합니다.

그것은 당신 주변의 사건, 사건, 사물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당신 안에 두는 데서 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데 너무 편안해서 천국을 사랑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천국을 정직하게 바라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것도요.

바울과 동의하고, 우리는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사실인 것처럼 바울은 왜 육신으로 주님에게서 멀어졌을까요? 모든 고린도인이 바울과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는 5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는 이 목적을 위해, 바로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더 좋게 만드신 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은 4절에서 필멸의 몸의 변화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5절하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말해줍니다.

우리가 5절 b라고 말할 때, 우리는 5절의 후반부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을 담보와 보증금으로 주심으로써 그리스도인 신자들을 부활과 변화를 위해 준비시키셨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담보, a rabon 이며 , 상업적으로 두 가지 기본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첫째, 그것은 담보 또는 보증을 의미하는데, 이는 최종 지불과 종류가 다르지만 의무적입니다. 알다시피, 때때로 집을 사고 싶거나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 그들은 당신이 그것을 사는 데 정말 관심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탄소와 같은 진지한 돈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그것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수천 달러를 입금했는데 환불이 불가능하다면, 입금하기 전에 그것을 정말 원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바로 그것, 아라본 , 보증, 즉 최종 지불이 의무화되거나, 부분 지불, 첫 번째 매장, 추가 지불이 필요하지만 수취인에게 문제의 상품에 대한 법적 청구권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보를 주셨다고 말하지만, 문제는 영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상속에 대한 하나님의 담보가 될 수 있는냐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분께서 우리의 일상적인 오락과 미래에 우리의 부활을 이루시는 능력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현재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의 미래 완성을 예고하고 보장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 바울은 영광스러운 몸에 대한 그의 고소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계속하며, 영의 임재와 활동에서 그 변화에 대한 보증을 가지고, 그는 그 확실한 소망에 대해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이 몸이 우리의 거주지를 형성하는 한 주님의 임재에서 떠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 이 몸 속의 집을 떠나 주님의 임재에 거주하는 것이 우리의 선호 사항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는 빌립보서 1장에서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싶고, 떠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고, 죽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이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네, 바울이 말하길, 네,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거주지를 떠나 주님 앞에서 거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육신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부재입니다. 6절에서 암시된 것이 바로 바울이 8절에서 명확히 언급한 것입니다.

6절: 우리는 항상 확신합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동안, 육신 안에 있는 동안, 우리가 주님에게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견습니다. 이제 들어보세요, 7절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견습니다. 우리는 시력으로 견지 않습니다.

이제, 7절은 6절의 가능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구절을 절대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그리스도와의 현재적 교제는 환상으로 보일 것이고, 그러면 필멸의 육신이 영성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읽은 것은 실제로는 바로잡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추론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실제로 여전히 믿음의 영역에서 걷고 있고, 시력의 영역에서 걷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님은 시력이 아니라 믿음에 현존하십니다

주님과 우리가 가진 특별한 분리는 일시적인 것이지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9절에서 우리가 집에 있든 없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말합니다.

9절은 기본적으로 1절에서 8절까지 이어지는데, 윤리적 명령과 거의 같은 방식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알다시피, 바울은 보통 몇 가지 가르침을 주고 나서 몇 가지 명령을 내리고, 이 점에 비추어, 내가 말한 것에 비추어, 이것이 당신이 살아야 할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윤리적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내가 방금 말한 것에 비추어, 주님을 떠나 있다가 그를 만나기를 기다리는 것에 비추어, 당신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8절까지 교리적 진리를 말한 후, 이제 9절에서 함축된 의미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방금 말한 것의 함축된 의미는 끊임없는 야망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죽음이 그리스도로부터 상대적으로 추방된 상태를 종식시키고 주님의 면전에서 시야의 영역에서 걷는 것을 시작할 것이라는 그의 인식은 그가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와 사람 대 사람으로 교제할 희망을 품는 것은 자연스럽게 죽음 전후에 그의 눈에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열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최고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기억하십니까? 그 요리문답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영원히 즐기고 싶다면, 세상에서, 우리의 필멸의 존재에서 그를 영광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와 함께 걷고, 그것을 매일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뭔가 깨달으셨나요? 이제,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를 망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설교할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은 우리의 욕망, 목표, 갈망이어야 하며, 저는 그저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때로는 누군가를 불쾌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불쾌하게 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와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 그 시점에서 당신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기본적으로 베마좌를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자리, 보상을 받는 자리, 왜냐하면 우리가 몸에서 하는 일은 도덕적 의미가 있고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려면 이 세상에서 그분의 형상과 성품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곳이 베마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조사된 것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신은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겁니다. 그는 우리가 행한 일을 보실 겁니다. 선하든 악하든요. 이제, 선하든 악하든 말이죠.

우리가 아는 악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가치가 없든,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과 달리, 바울에게는 그를 위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즉, 베드로가 틀렸을 때조차도, 그는 베드로를 마주보고, "베드로, 당신은 이 수준에서 틀렸어요."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볼 수 있죠. 그는 그에게 "아니요, 맞아요, 당신이 나보다 먼저 사도였음을 압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정확히 그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당신이 그 대화에 있었다면, 그는 "네, 당신이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건 알지만, 이 시점에서는 당신이 틀렸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기쁘게 하는 설교에 열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복음 선포와 그의 전 생애는 사람들로 부터 명예와 찬사를 얻는 것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바쳐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사람들은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 설교자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메시지였어"라고 말하기를 기다립니다.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당신에게 와서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하지만 교만해지지 말고, 영광이 하나님께 속한다면,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을 읽어보면, 그가 "당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고 말할 때, 그리고 주어졌다면, 왜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느냐? 우리가 사역에서 이룬 모든 성공, 모든 성공, 모든 승리는 모두 하나님께 기인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주는 영광에 너무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있는 동안 심판 때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지 드러낼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허세가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가면이 벗겨질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모든 변장, 가면, 허세를 벗을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일은 도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맞게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모여야 합니다.

이 맥락에서 바울은 주로, 아니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우리 자신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격에 대해 간접적으로 우리의 행위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위가 아니라 보상에 관한 것입니다. 이 구별을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바울의 동기가 12절에서 17절로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함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잘 알려져 있으며, 또한 여러분의 양심에도 잘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으로 자랑하고 마음으로는 자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랑할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제정신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요하거나 재촉하는 것은 우리가 한 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니, 이는 살아 있는 자들이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한때 그리스도를 사람의 관점에서 알았지만,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이 있습니다. 옛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라,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그는 주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이 11절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개인적인 경건함도 아니고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일으키시는 공포도 아닙니다. 그는 바울이 자신의 신성한 평가자이자 재판관인 그리스도에 대해 가졌던 경건한 경외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봉사에 대한 동기입니다. 11절에서 15절에서 바울의 봉사에 대한 동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이 사역에 대한 세 번째 동기를 검토하면서 초점은 다시 바울의 사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는 먼저 선포 사역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 그의 설교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5장 11절에서 13절에서 바울은 1장 12절에서 14절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을 반복합니다. 그는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충실하고 근면한 봉사의 기초로 봅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 책임을 알고, 우리는 사람들을 설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설득합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확신시킵니까?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복음의 진실과 자신에 대한 진실, 즉 그의 동기는 순수하고 진실했으며, 그의 사도적 자격과 복음의 진실에 대한 방어에는 설명과 복음의 진실에 대한 공개적 진술 방어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성경의 설명과 복음의 실제적 의미에 대한 논쟁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충실하고 근면한 봉사의 기초로 봅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장 많이 섬긴다고 합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장 많이 섬긴다. 노예적인 두려움이 아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런 두려움은 자립을 배제한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지혜와 빈약한 자원에 헛되이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의 비평가 중 일부는 그가 정신 나갔다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우리가 정신 나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제정신이라면,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인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적어도 약간은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의 종류입니다.

사회는 그리스도인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 그들은 누군가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믿는 것이 약간 미쳤다고 생각하며, 누군가가 당신의 죄를 위해 죽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다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감각을 잃었습니까? 글썄요, 바로 그들이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도 사랑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소유격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다거나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울이 거기서 결정을 내리려고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제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이 여러분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살아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과 오늘날의 신자들에게 우리의 신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일은 4절에서 15절까지 말한 것의 거짓된 결과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인간의 기준으로 사물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물을 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인간의 기준으로 사물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따라 사물을 판단합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것은 사회 전반과 학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판단은 그리스도 당시 바리새인들의 판단만큼이나 틀렸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목수의 아들로만 보았거나 환멸에 빠진 예언자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그렇게 봅니다. 그리스도 외에도 사람들은 인간의 기준에 따라 평가받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출신 지역, 국적, 민족, 교육 수준, 부 등에 따라 대우받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물론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 기준은 화해를 촉진하기보다는 갈등과 분열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피상적인 인간적 기준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들이 아는 것에 따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평가는 이 사람들이 신자인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경청하는 것은 단순히 손을 들어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상이며, 인용문에서 말했듯이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결과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17절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 창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왔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로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새로운 종교를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가져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새로운 종교를 가져오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찰스 디킨스의 이야기, 크리스마스 카드를 읽으면 주름지고 냉소적이며, 비통하고, 탐욕스러운 노인 에비니저 스크루지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꿈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고인이 된 파트너, 제이콥 말리가 나타나, 그를 긴 의자에 태워 스크루지에게 그의 죽음이 확실하며 평생 다가올 것이라고 말한다. 말리는 증오, 탐욕, 불의를 통해 그의 사슬의 모든 고리를 만드는 데 노력했다.

그래서 스크루지는 크리스마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여행하고 있었고, 그는 묘비에 새겨진 자신의 이름을 본다.

죽음이 무섭게 다가오자 마침내 그는 변화했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아침에 다른 사람으로 깨어났습니다. 스크루지가 다음 날 깨어났을 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날씨, 빛, 사람들, 그의 관계, 그리고 그의 가벼운 걸음걸이, 모든 것이 문자 그대로입니다. 임박한 죽음과 다룰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으로 그는 삶에 대한 그의 관점을 새롭게 생생하게 만들었습니다. 디킨스는 그의 이야기에서 복음에 대해 언급하지 않지만,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좋은 초상화를 제공하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무슨 일이 행해졌는지 알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에 들어갈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변화합니다. 훨씬 더 심오한 의미에서,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각자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듭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이며, 존 번연의 천로역정에 나오는 순례자처럼 과거에 우리를 억누르던 모든 짐에서 자유로워진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환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기독교인이 바랄 수 있는 최선입니다.

불행히도, 거기에는 없습니다. 이 삶에 또 다른 기회를 얻는 사람들이 있지만, 누가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두 번째에도 똑같이 영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삶,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지고 깨끗해진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18절에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에게 화해시키시고 화해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 형제 자매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환은 있을 수 없고, 사람의 마음이 변화하지 않는 한 화해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변화, 변화는 화해로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인종과 성별,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따라 우리가 분열될 때, 그것은 증오이고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말은, 만약 우리가 인종차별을 없애고 싶다면, 우리는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종차별은 죄이고 증오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에게 화해시키시고 화해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신자로서 우리의 책임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자기에게 화해시키셨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말할 때, 그는 14절에서 17절에 있는 것들, 특히 14절에서 15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다른 사람들을 자기에게 화해시키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인류 사이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 결정적인 단계를 밟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그의 자비로, 그의 은혜로, 이제 사람들을 자신에게 화해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대사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19절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첫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와 반역으로 인해 생긴 분리의 심연을 메웠습니다. 둘째, 중재자는 그리스도였습니다. 화해는 갈보리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그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리에 서 계셨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화해의 메시지와 사역을 믿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들어보세요, 그는 우리를 대사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로서, 외교부에 있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본국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은 한 국가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는 모든 문장이 중요합니다. 모든 모습이 면밀히 검토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움직임은 당신이 대사이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감시됩니다. 당신이 성명을 발표하면 사람들은 그것에 매달립니다. 그들은 당신이 주 정부를 대표한다고 믿고 그것을 그렇게 여깁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을 이해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대표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에게 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은 국가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지만, 특정 국가의 특정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그의 정치에 자금을 지원해 준 아주 좋은 친구가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래서 그는 그에게 갔다. 그는 학식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매우 부유했다. 그는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매우 부유했다.

그래서 그는 그 대통령의 선거에 자금을 지원했고, 어느 날 그는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직책을 맡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통령에게 갔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윌리엄, 당신이 나를 임명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나에게 부탁을 하나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사로 임명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지만, 그는 당신이 나를 독일에서 당신의 창피한 존재로 임명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저는 당신이 저를 독일 대사로 임명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대신, "저는 당신이 저를 독일에서 당신의 부끄러운 존재로 임명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고, 대통령은 그에게 "당신은 독일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여기에서 제 부끄러운 존재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부끄러운 존재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대사인가? 복음의 목사로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분께 부끄러운 존재인가, 아니면 그분의 대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충실한 대표를 제공하고 있는가? 대사로서 우리는 큰 책임,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해를 제공하시지만, 그것은 그것을 제공받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목표를 다시 언급하면서 이 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우리를 위해 속죄제를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런 다음 21절에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죄를 알지 못하신 자를 보이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그를 죄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십시오.

hatat을 보면 죄 또는 죄를 위한 제사를 모두 의미할 수 있습니다. Hatat 또는 asam 과 같이 죄와 죄를 위한 제사를 모두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의도는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이 되었다는 것 이상을 말하고, 그리스도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 이상을 말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죄인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영적으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건 틀렸어. 예수가 영적으로 죽었다면, 그 자신도 구속자가 필요했을 거야. 그는 그렇지 않았어. 내 말은, 그리스도와의 동일시에 대해 말하려고 시도하면서,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았지만, 그는 그를 속죄 제물로 만들었어.

죄 없는 그리스도와 죄인의 죄, 그의 끔찍한 죄책감과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무서운 결과를 포함하여 그의 죄와 완전히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심오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를 위해 죄로 만드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셨듯이, 아버지께서 눈을 돌리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당신의 죄와 나의 죄가 우리의 속죄 제물로 그에게 놓여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죄 없음을 선언한 것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말한 것과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4장 15절과 7장 26절에서 말한 것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본질적이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동일시하신 죄도 그에게 본질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는 죄악적인 태도를 갖거나 죄악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올 수 있는 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예수님은 흠이 없으셨고, 우리는 그분의 대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부끄러운 존재입니까?

고린도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아요 아데 우야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6, 고린도후서 5,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